

불자 세상보기

몰카는 '인격살인' ... 윤리 교육 필요



허남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얼마 전 이른바 '위터파크 몰카' 사건은 우리나라의 몰래 카메라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이 사건에서 여성은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도 있음을 입증했다.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수영장 여자 탈의실 동영상 파일을 남긴 피의자 여성은 같은 여성을 상대로 서슴없이 몰래 카메라를 작동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별다른 죄책감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경찰의 전언이고 보면 비도덕적 인간성의 일반화현상을 보는 것 같아 섬뜩하기만 하다. 그는 어쩌면 보편적인 휴머니즘에 대한 믿음을 정면으로 배반했다는 세상의 비난으로부터 당분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문제는 그런 몰래 카메라의 사진이나

동영상물을 즐겨 감상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성적 취향을 가진 성도착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이라는 점이다. 인터넷시대에 남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재미삼아 한 번 검색해 본 것을 가지고 뭐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우리 자신 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몰래 카메라의 가해자들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위터파크 몰카 사건'을 스스로 웃길듯 여미는 계기로 삼아야 할 인간적 이유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 정도라면 일반시민들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개인의 사생활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뭔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찰에서도 뒤늦게나마 불법카메라의 유통을 막기 위한 단속에 나섰다지만 워낙 많은 종류의 초소형 몰래 카메라가 유통되고 있어 일일이 위협적 여부를 가려내어 처벌하기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더욱이 성범죄 등에 악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구매,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재

할 관련 법규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라고 한다. 따지고 보면 이런 사건의 경우 단속과 처벌만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기 때문이다.
몰래 카메라 사건의 발생건수는 2010년 1134건에서 2015년 6623건으로 5년 사이에 약 6배나 증가했다. 여기에 신고 되지 않았거나 발각되지 않은 몰래 카메라 숫자까지 합치면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영국의 공리주의자 존 스튜어트 밀의 말을 빌리면 어떠한 경우에도 나의 쾌락 추구가 다른 사람의 고통증가를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할 수 없다. 누구든지 자신의 사적 이익을 향유할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사람의 똑같은 자유와 권리가 당연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 남의 몰래 카메라를 훑어보는 데서 오는 나의 작은 쾌락이 상대방에게는 큰 고통의 원인이 된다면 우리의 선택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큰 고통의 방지를 위해 작은 쾌락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건전한 상식인의 윤리적 결론이다. 이처럼 때때로 공리주의의 단순한 발상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런 시시한 일들에서까지 굳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용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고, 한결 수월하게 상실감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 덕분이였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이유가 어찌되었든 내 마음가짐이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두 똑같이 행사 연습을 하더라도 누군가는 파이팅을 외치며 활발하게 참여하지만 누군가는 어쩔 수 없이 끌려온 듯 수동적인 모습을 보인다. 또한 똑같은 어려움을 부딪혔을 때 누군가는 즐겁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찾아내지만 누군가는 힘들어하며 포기할지 말지를 고민한다. 이 책에 따르면 두 부류의 차이는 역경에 대처하는 마음가짐이다. 힘든 상황이라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한다면 스스로 행복과 멀어지게 되지만, 극복하고 난 후의 기쁨을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임한다면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세상 모든 일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그 행복감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힘을 얻고, 또 이것이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면 '당신은 행복한가' 라는 물음에 '그렇다' 라고 당당히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제1회 사관생도 독후감 공모
대상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을 읽고

조계종 포교원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제1회 사관생도 불서 독후감 공모전'을 열고 9월 12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서는 김지혜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작을 발췌·정리했다. <편집자주>



김지혜
국군간호사관학교 3학년 생도

어렸을 때 엄마가 손목에 걸여준 주머니가 예뻐서, 좀 더 커서는 '오세암'이라는 애니메이션에 감동받아서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사관학교에 입학한 이후, 의무적인 종교활동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법회에 가지 않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카카오토티' 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법륜스님의 희망편지' 내용을 전해 주셨다. 매일 하나씩 올라오는 좋은 말씀들 중 특히 내 마음에 와 닿았던 것은 행복과 관련된 것이었고, 마침 전달받은 불서 독후감 공모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세 가지 불교서적 중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달라이 라마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대중매체를 통해 본 달라이 라마는 평온한 얼굴을 한 스님이었는데, 이런 분과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사람이 묻고 답한 내용에서 행복해지는 법

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작가는 이 책을 한 마디로 '개인의 행복 찾기 지침서'라고 소개했다. 이 책을 통해 우울함, 화남, 기분 나쁜 감정 등 부정적 감정을 다스려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알 수 있었다.
'행복에 대한 토론' 편에서는 행복의 추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였다. 마음이 행복한 사람은 타인과 친해지기 쉽고, 회복탄력성이 좋으며 애정이 풍부하고 관용적이라고 한다. 내 경험에 비추었을 때, 나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때 대상을 비틀게 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그냥 넘어갈 만한 작은 일에 트집을 잡기도 했다. 반대로 행복감을 느낄 때는 굳이 내가 나설 이유가 없는 일을 돕기도 했고 선풍기 부탁을 들어주기도 했다. 이렇게 마음이 행복하면 쉽게 타인을 도와주게 되며 개인 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가장 큰 공감과 함께 실천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내용은 '단순한 지혜' 편이었다. 여기서 달라이 라마는 행복이

바깥에 있지 않고 마음 안에 있다고 하였고, 한결 수월하게 상실감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 덕분이였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이유가 어찌되었든 내 마음가짐이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두 똑같이 행사 연습을 하더라도 누군가는 파이팅을 외치며 활발하게 참여하지만 누군가는 어쩔 수 없이 끌려온 듯 수동적인 모습을 보인다. 또한 똑같은 어려움을 부딪혔을 때 누군가는 즐겁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찾아내지만 누군가는 힘들어하며 포기할지 말지를 고민한다. 이 책에 따르면 두 부류의 차이는 역경에 대처하는 마음가짐이다. 힘든 상황이라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한다면 스스로 행복과 멀어지게 되지만, 극복하고 난 후의 기쁨을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임한다면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세상 모든 일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그 행복감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힘을 얻고, 또 이것이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면 '당신은 행복한가' 라는 물음에 '그렇다' 라고 당당히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고, 한결 수월하게 상실감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 덕분이였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이유가 어찌되었든 내 마음가짐이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두 똑같이 행사 연습을 하더라도 누군가는 파이팅을 외치며 활발하게 참여하지만 누군가는 어쩔 수 없이 끌려온 듯 수동적인 모습을 보인다. 또한 똑같은 어려움을 부딪혔을 때 누군가는 즐겁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찾아내지만 누군가는 힘들어하며 포기할지 말지를 고민한다. 이 책에 따르면 두 부류의 차이는 역경에 대처하는 마음가짐이다. 힘든 상황이라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한다면 스스로 행복과 멀어지게 되지만, 극복하고 난 후의 기쁨을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임한다면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세상 모든 일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그 행복감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힘을 얻고, 또 이것이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면 '당신은 행복한가' 라는 물음에 '그렇다' 라고 당당히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社說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1945년 8월 5일 히로시마에는 '리틀 보이'라는 양중맞은 이름의 원자 폭탄이 투하된다. 당시 히로시마에 약 25만 5,000명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7만 명이 초기 폭발로만 사망했고 이후 피폭으로 사망한 사람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한인 희생자로 상당 수였다. 이후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은 오늘날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전쟁이 가져다 준 업보이다.
2차 세계대전 정전 70년을 맞아 한중일 3국 불교계가 일본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으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제18차 한중일 불교우호 교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전쟁의 아픔을 보듬고 미래의 불교 역할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한다. 9월 15일 히로시마 평화공원에서 열린 세계평화기원법회에서 각국 불교 대표단은 예불 의식을 올리고 원폭 사물자

위령비와 원폭 공양탑, 한인 희생자 위령비를 차례로 돌며 희생자의 넋을 위로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대회에 앞서 자체적으로 추모 위령재를 열고 한인 피폭자들의 추모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 같은 한중일 삼국 불교계의 추모와 참회가 선연적 행사에 그쳐서는 안된다. 아직도 세계는 전쟁을 하고 있고, 그 준비를 하고 있기도 하다. 전쟁의 아픔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한중일뿐만 아니라 세계 불교도들은 힘을 모아야 한다.
당장 아시아에만 보아도 일본의 아베 내각은 언제라도 전쟁을 할 수 있는 법안을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북한은 핵을 빌미로 동북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정세에서 불교도들은 더욱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평화를 주장해야 한다. 그것이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한중일 삼국 불교 '황금유대'의 완성은 평화를 이룩하는 데 있다.

문화재 전시행정 언제까지 할 것인가

올해에도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는 문화재 행정에 관한 다양한 문제들이 거론됐다. 불교계와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안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경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시흥을)의 질의였다. 조 의원의 질의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문화재청은 환개미 예방 대책 마련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으나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문화재청이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2년 환개미 피해 예방 대책으로 △전수조사,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를 사전에 발견 △적극적 방제 추진 △환개미에 대한 예방교육 연 10회(전국순회) 실시 △환개미 피해 예방을 위한 진단·조사 등 연구 인력 보강한다고 발표한다. 하지만 모니터링의 경우 전수조사 이후 방제·방역을 하더라도 업체로부터 방제·방역 이후 준공보고만 받았고, 인력보강은

발표와 달리 조사인원만 1명이 증가했다. 연구팀은 3명으로 전혀 늘지 않았고, 그마저도 비정규직으로 연구의 연속성을 기대할 수 없었다.
환개미 예방 교육을 10회 실시하겠다는 것도 허언에 그쳤다. 환개미 피해 예방 교육은 단 한차례, 지역별로 2차로 나눠 진행한 것이 전부였다. 사실상 문화재청은 조사만 하고 정작 대책 마련과 정책 시행에는 손을 놓은 '용두사미'의 모범을 보여준 것이다.
대책을 발표 해놓고 전혀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다. 환개미로 인한 목조문화재의 피해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학계와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때마다 문화재청은 면밀한 조사와 방제를 약속했다. 하지만 그 민낯은 복지부동의 전시행정이었다. 이제라도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책별 이행계획을 마련해 환개미 방제 정책을 시행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서혜원 편집인: 박해월 인쇄인: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인쇄물 연발담당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연발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물 연발담당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062)512-5003
전북지사: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영주지사: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세계에서 칙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15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한국 유학생 중국 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1 특차모집
학과 학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매
2 학교소개
▶ 세계적 1위 명문 국립 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 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가능
▶ 서울 시내 대학 편입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시스님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2015년 9월 25일 까지 수시전형
5 문의처
☎ 전화: 86-25-84028478
86-13-585195431
☎ 팩스: 86-25-84028479
◎ 한국상담 안내처: 불교조계종
■ 주소: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논현동 2-14 2층)
■ 전화: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02)511-2028
■ http://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소: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헤인
중의대 칙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